선명상으로 국민 평화, 힙한 불교로 트렌드 사로잡다

현대불교신문 선정
2024년 10대 뉴스

올해 한국불교는 대중의 마음에 공감하며 변화와 성장을 이룬 한 해였다.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선명상으로 안정과 평화를 전하는 데 주력했다. 한국불교의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 대학생 청년 등 젊은 세대의 포교 활성화에도 힘을 쏟았다. 이 과정에서 사찰 소개팅 프로그램인 '나는 절로'가 큰 인기를 끌며 새로운 붐을 일으켰다. 불교계 내부에서는 주요 종단과 신행 단체의 수장이 교체되며 새로운 변화를 예고했다. 특히 조계종은 기존 체계를 1원 체계로 전환하는 대대적인 혁신에 나섰다. 반면, 선지식 스님의 원적과 사찰 이모지 누락과 같은 아쉬움도 남겼다. 한 해를 장식한 한국불교 주요 이슈를 정리했다. 〈편집자 주〉



'2024 국제선명상대회'가 올해 9월 2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렸다. 총무원장 진우스님과 수좌스님들, 해외명상가들이 5분 선명상을 하고 있다.

1. 선명상 대중화

2024년은 선명상 대중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세계화의 가능성을 엿본 해다. 조계종은 9월 28일 '2024 국제선명상대회'를 통해 선명상 대중화에 포문을 열었다. 간화선을 기반으로 한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과 선명상센터 건립 등을 통해 선명상 대중화와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선언하고 '전국민 5분 선명상'을 제안하기도 했다. 조계종은 선명상 안내서를 비롯해 애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며 선명상 실천을 돕고 있다.

10월 5~13일에는 미국 뉴욕을 방문, '2024년 한-미 전통불교문화교류'를 통해 K선명상과 한국불교 세계에 알렸다. 예일대 특강, 석학들과의 대담은 선명상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리고 한국불교의 진수를 선보이는 시간이 됐다.

2. 힙한 불교, MZ 포교 이끌다

'뉴진 스님' '불교 AI뮤직' '깨닫다' 티셔츠 등 2024년 올 한해 불교는 'Hip(힙)'했다. 어렵고 고리타분한 편견에서 벗어나, 재밌고 개성 있는 모습으로 무장한 불교는 MZ 세대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실제로 서울·부산국제불교박람회는 2030 세대로 인산인해를 이뤄, 방문한 관람객 수가 전년대비 3배 증가했다. 이 같은 '힙한 불교' 열풍은 대학교와 국내 서점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동국대에서는 '영캠프' 수계식을 봉행해 4500여 명의 대학생 불자가 탄생했으며, 불교 입문서가 올해 관련 도서 2030 세대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회암사 불조사리 친견 천일기도'가 양주 회암사에서 봉행됐다.

3. 대학생 전법 활성화

해봉당 자승 대종사의 원력으로 본격화된 '대학생 전법'이 올해에는 빠르게 활성화됐다. 무엇보다 눈길을 끌었던 곳은 조계종립 동국대다. 동국대는 이사장 돈관 스님을 중심으로 29개 단과대학에 불교 동아리 창립을 이뤄냈고, 동아리 회원들을 대상으로 '영캠프' 수계법회를 봉행해 이들을 불자의 길로 이끌었다. 이를 통해 배출한 불자가 서울캠퍼스에 2500명, WISE캠퍼스에 1800명에 이른다.

사찰들의 대학생 전법 지원도 눈길을 끌었다. 월정사는 강원대 인문대학 내 불교탐방동아리 창립을 견인했으며, 봉은사에서는 대학생 버전 '나는 절로' 프로그램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불자 교수 단체인 한국교수불자연합은 대학마다 교수불자회 창립을 통해 캠퍼스 전법을 추진할 뜻을 밝혀 주목을 받았다.

4. 전국을 휩쓴 '나는 절로' 열풍

힙한 불교 열풍과 함께 떠오른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나는 절로'는 '사찰 소개팅'이라는 어디서도 볼 수 없던 독특함 덕분에 1년 내내 인기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강화 전등사, 양양 낙산사, 장성 백양사 등 매 기수마다 높은 경쟁률은 물론 4쌍, 5쌍, 심지어 7쌍의 인연이 쏟아져 "결혼정보회사보다 높은 커플 매칭률"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었다. 저출산 인식 개선에 일조한 공로를 인정받아 '인구의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고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어워즈 환경 조성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나는 절로'는 내년 봄 하동 쌍계사에서부터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장성 백양사에서 진행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나는 절로'.

5. 선지식 잇달아 원적

올해는 유독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어른스님들의 원적 소식이 많았다.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남은당 현봉 대종사가 5월 1일 원적에 들었다. 스님은 원적 직전까지 보조국사의 업적을 널리 선양하는 불사는 물론 보조학술상 제정에도 큰 힘을 기울였기에 안타까움이 더했다. 11월 4일 금강선원장 혜거 대종사가 원적했다. 대종사는 1988년 서울 개포동에 금강선원을 개원하고 참선과 교육을 중심으로 전법·포교행을 펼쳤다. 조계종 원로의원이자 불국사 회주 대궁당 종상 대종사가 11월 8일 불국토 토함산의 지수화풍으로 돌아갔다. 종상 대종사는 종단 각종 소임과 종회의원을 역임하며 종단 발전을 이끌었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이 출가학교 참가자의 삭발을 진행하고 있다.

6. 조계종 다시 일원 체재로

1994년 조계종 종단 개혁 이후 30년 간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3원 체계로 운영됐던 조계종이 총무원 1원 체재로 탈바꿈한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9월 10일 열린 제231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총무원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은 현행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12부실 17개국에서 총무원 10부실소 13국으로 개편된다. 총무원 조직 산하 기관 및 종무원장 직속에 대해 종령으로 명시하며 종단 전법 포교 시스템 재구축 및 강화, 스님들을 위한 행정서비스 일원화와 함께 미래 불교 대비를 위한 연구 조직이 신설될 예정이다. 일원 체재는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7. 단기출가 관심 고조

출가자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사찰이 운영하는 단기출가 프로그램이 현대인의 관심을 끌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다. 오대산 월정사는 올해 출가학교 20주년을 맞아 미국 우든 피쉬재단과 글로벌 불교 체험의 장을 열었다. 22개국 80여 청년이 참석해 한 달간 명상·참선·3보1배 등을 경험했다. 수원 봉녕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출가학교를 열었다. 올해 열린 1·2기 출가학교에서는 실제 출가자를 배출하는 성과도 거뒀다. 내년 1월 중 3기 여성출가학교가 시작된다. 서울 조계사도 청년·대학생 단기출가 프로그램을 진행해 젊은 세대가 친근하게 불교적 삶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왔다.

8. 해외 유출 성보 환지본처

1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본래 자리를 떠나있던 불교문화 유산들이 제자리를 찾았다. 보스턴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던 부처님 진신사리와 나옹선사·지공선사 사리가 100년 만에 본래 소장처인 양주 회암사로 돌아왔다. 3여래 2조사 사리가 한 번에 사찰로 돌아와 예경 대상으로서의 본래 가치를 회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승탑의 백미'로 불리는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도 113년 만에 본래 위치에 복원됐다. 최근 5년여간 정밀 복원 작업을 거쳐 올해 11월 법천사지에 안정적으로 안착했다.

미국 시카고대학교 스마트미술관이 소장한 예천 보문사의 신중도도 도난 35년 만에 반환을 확정했다.

9. 사찰 이모지 누락 논란

온라인 의사소통을 돕기 위한 그림문자, '이모지'에 '사찰'이 누락돼 논란이다. 발단은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였다. 기독교, 이슬람교 심지어 일본 토속신앙 신토를 상징하는 종교적 장소 이모지는 있는 한편, '사찰' 이모지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전 세계 기업에 이모지 표준코드를 배포하는 미국 유니코드 협회에 사찰 이모지 표준코드가 빠져있었기 때문이다.

매년 4~8월 협회는 신규 이모지 공모를 연다. 협회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이모지를 제작·신청한다면 사찰을 온라인 이모지 창구에서 만날 수 있다. 불교의 세계화를 위해서라도 범불교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기다.

10. 불교 종단 · 단체 새 수장 취임

불교계 종단과 신행 단체에서 새로운 수장이 탄생했다. 진각종 제32대 통리원장 능원 정사가 12월 10일 공식 취임했다. 능원 정사는 서울 진각문화전승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감동교화로 진각종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불교총지종 제21대 통리원장에는 록경 정사는 11월 19일 중앙종의회에서 선출, 12월 27일 임기 시작한다.

제28대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에는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이 10월 2일 취임했다. 대한불교청년회 제33대 중앙회장에는 이길수 건축사사무소 혜연 대표가 선출됐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제63년차 중앙회장에는 유주연 창원지부장이 단독 출마했다.

사람을 더하세요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고민하지 말고 연락주세요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시군구
자살예방센터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생활 속 도움

정신건강상담전화	1577-0199
서민금융콜센터	1397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544-1199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노인일자리 정보안내	1544-3388
지역민원상담센터	120

청소년·청년·여성의 고민

청소년상담 (전화상담/사이버상담/문자상담)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카카오톡/페이스북/앱/1661-5004 문자상담)	다들어줄개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국 학교폭력 상담전화 (푸른나무재단 전화상담)	1588-9128
국방헬프콜 (전화상담/사이버상담/APP상담)	1303
온통청년 (카카오톡 실시간 상담) www.youthcenter.go.kr	
여성긴급전화 (전화상담/사이버상담)	1366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KOREA FOUNDATION FOR SUICIDE PREVENTION
불교상담개발원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
생명존중 사업안내

불교상담개발원은
'모든 존재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존재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서원하며
생명존중을 위해 늘 정진하고 있습니다.

- 생명살림(생명살림법회, 캠페인, 포럼 등)
- 생명이음(종교예식, 템플스테이, 자조모임 등)
- 생명지킴(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상담)

전화번호 : 02-737-7378 FAX : 02-737-8802
E-mail : jabi0001@naver.com, jabi3719@daum.net
홈페이지 : www.kbcd.org